

태고종 봉원사 연꽃축제 문화공연 등 8월 8일까지

태고종 봉원사주지 환우는 7월 25일부터 8월8일까지 대웅전 앞 특설도량에서 제4회 서울연꽃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불생불멸의 자생력과 정화력을 지닌 연꽃을 통해 인간 본성을 발현하여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봉원사를 시민들에게 친숙화시킨 후식공간으로 개방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축제 첫날인 7월 25일에는 기법법회에 이어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과 김태곤 송준희 나현 등 불자 가수들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등이 펼쳐졌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의 정취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연꽃감상 산책로가 조성되며, 만봉 스님의 대형 작품전과 연꽃 전문 사진작가 선암 스님의 사진전, 도예가 김화동의 찻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마련된다. 또 일요일에는 연약치 시음행사, 전통다도시범, 연등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열린다. 8월5일에는 초등학생 100명, 중·고교생 200명, 대학생 이상 성인 50명이 참가하는 그림별 연꽃그림 그리기와 백일장이 진행된다. (02)392-3007 김주일 기자

사이버 포교 반응 좋네

일봉선교 · 미륵 · 법륜종 등 홈페이지 개설 행사안내 · 상담 · 동영상 서비스 제공



미륵종 홈페이지



일봉선교종 홈페이지

"종단의 모든 공지사항 인터넷을 통해 알리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도 종단이라고 산하에는 1백개 이상의 사찰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종단의 공지사항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런 현실의 장벽을 넘기가 한결 수월하다. 규모가 큰 종단이야 이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종무행정 등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효율성을 알면서도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종단들은 홈페이지 하나 만들기가 녹록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규모 종단 홈페이지가 종단의 이미지를 알리고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며 전문 인력도 배치해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또한 주요 사찰의 개인법회와 행사 등은 동영상까지 서비스 하고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종도들에게 행사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사결과도 속보형식으로 바로 알려줘 홈페이지가 '제2의 총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판이다. 사이버 포교만큼은 전통종단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규모 종단 홈페이지가 종단의 이미지를 알리고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륜종(총무원장 탄광)은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간에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황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홈페이지 활용이 늘면서 종단행사 참가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홍보 강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종단 관계자는 말한다.

한국의 불교종단협의회 27개 종단 중 조계 · 태고 · 천태 · 진각종 등 4대 종단을 포함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15곳. 이중 총화종 일봉선교종 미륵종 법륜종 등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포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 종단이다. 2002년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꾸준히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종헌종법, 소의경전, 종단사 등 종단현황과 산하사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내용을 겪으며 종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재)일봉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은 지난 6월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홈페이지에는 종단의 역사와 추구하는 방향, 월별 행사와 법회 일정, 공지사항 등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 소식, 불교계 소식 등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란, 자료실, 인터넷 사찰기행 등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동종과 법상종도 조만간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하사찰들도 도권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링크돼 있어 개별적으로 종단 지침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법륜종(총무원장 남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 종단이다. 2002년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꾸준히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부원장 해천 스님은 "개설한지 얼마 안됐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면이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외부업체에 맡겨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도 빨리 업데이트 되고, 스님들의 건의 사항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어 종무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고 말했다.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간에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황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지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처음 가입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간에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황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한국의 불교종단협의회 27개 종단 중 조계 · 태고 · 천태 · 진각종 등 4대 종단을 포함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15곳. 이중 총화종 일봉선교종 미륵종 법륜종 등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포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 소식, 불교계 소식 등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란, 자료실, 인터넷 사찰기행 등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동종과 법상종도 조만간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하사찰들도 도권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링크돼 있어 개별적으로 종단 지침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법륜종(총무원장 남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 종단이다. 2002년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꾸준히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부원장 해천 스님은 "개설한지 얼마 안됐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면이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외부업체에 맡겨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도 빨리 업데이트 되고, 스님들의 건의 사항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어 종무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고 말했다.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간에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황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지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처음 가입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종단



민간인 법사 후원체계 마련하자

군법사를 대신해 부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민간인 법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 원력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후원 체계가 절실하다.

■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 · 민간인 법사 활동 현황

Table with 4 columns: 법당명, 소속, 평균법회 참석인원, 활동 포교사, 법회 지원일. Lists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their associated activities.

민간인 법사는 군법사를 대신해 종교 행사를 주관하며 법당 관리 등 법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부대 출입에 제한이 없고 부대 내 포교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제도를 잘 몰라 개인 차원에서 군포교에 나서고 있는 재가법사가 많고 해당 부대 군법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민)는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를 중심으로 민

대부분 사재 털어 활동 사찰 · 기업 · 단체 등과 결연 활성화해야

간인 법사 제도를 알리며 군법사들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후원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군법당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재가법사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 포교에 나서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찰이나 불자 기업, 불교 단체 등과 군법당, 민간인 성직자간의 결연을 통해 종교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자는 것.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에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의원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앞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에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흙)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입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연간 1만 6천여 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이입니다.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군장병 위문, 방문, 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 제일은행 325-20-203673
우리는행 1005-580-051116
농협 094-01-156954
지로번호 7681972
조흥은행 377-01-058158
우체국 010025-01-010767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내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